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로 모색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헌



현재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유가 상황에서도 2015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주요국의 수요 증가세, 기술발전, 신기후변화체제 등장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및 일본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며, 기술발전 속도 또한 매우 빨라 풍력과 태양광은 머지않아 화석연료와의 가격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있는 가운데 신기후변화체제는 시장 확대 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시장과 달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단계이고 에너지신산업과의 융합은 초기단계에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 우위를 가진 유럽, 북미, 일본의 일부 기업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분야는 원천기술과 일부 부품, 제조 장비를 제외하면 완제품 분야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5년에 11%로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비라는 관점에서 틈새를 노리거나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면 제조업 강국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해상 풍력이나 박막전지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과 ICT산업을 기반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미 시행중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에 의거하여 경쟁력 기반을 갖춘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 자립섬 실증을 통한 분산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세계적 우위를 확보한 발전용 연료전지 등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세 전망에 따른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로를 타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책이 요청되며, 태양광 및 풍력 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의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되려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간 투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과 시장접근성이 확보될 때 스스로 증가한다. 따라서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은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도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